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iachoi@kiep.go.kr, Tel: 044-414-1049)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hlee@kiep.go.kr, Tel: 044-414-1134)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차 례

1. 머리말
2. IPEF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입장과 참여 배경
3.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의미와 전망

주요 내용

- ▶ 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IPEF에 참여함.
 - 당초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일찍이 참여 의사를 밝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IPEF 출범식에 참여함.
- ▶ 아세안 주요국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약화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IPEF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IPEF 출범 직전인 5월 12~13일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IPEF가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완성될 것이라는 점과 IPEF를 통한 미·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전망을 시사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을 것으로 관측됨.
 - 4개 필라에 모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부 필라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IPEF 참여의 애로요인을 줄여 주었으며, 대만의 IPEF 참여 불발 역시 중국을 의식하던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을 낮추었음.
- ▶ 아세안 주요국은 일단 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후 향후 IPEF의 논의 전개 상황에 따라 특정 필라에의 최종 참여를 결정하는 실리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되기보다는 초기 멤버로 참여해 아세안공동체 혹은 자국에 유리한 규칙(rule)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IPEF 논의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들은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며, IPEF가 중국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함.
- ▶ 아세안 국가들의 대거 참여로 IPEF는 역내 주요 다자경제협력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이 국가들이 IPEF 특정 필라에 최종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참여 전망은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IPEF 협상에는 참여하되 IPEF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특정 필라에 대한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 발효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1. 머리말

■ 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함.

-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다자경제협력체로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TPP 가입 철회 이후 약화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도모하고 회복력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① 무역 ② 공급망 ③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④ 조세·반부패의 4대 필라(pillar)로 구성됨.
-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총 13개국이 IPEF 출범식에 참여하였으며,¹⁾ 5월 27일 피지(Fiji)가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힘.²⁾

표 1. IPEF 4대 필라별 목표와 주요 의제

필라(Pillar)	주요 의제
1.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규범(trade commitments) 수립 · 경제활동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무역과 기술 정책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 개발 · 디지털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
2.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한 회복력 있고 통합적인 공급망 구축 · △위기대응 조치 조율 △공급망 차질 대비 및 영향력 경감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의 연속성 확보 △물류 이동의 효율성 향상과 개선 지원 △핵심 원자재, 가공품, 반도체,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권 보장 추구
3.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가속화를 통해 역내 경제의 탈탄소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 △기술협력 강화 △양허성 재원을 포함한 금융 동원 △지속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인프라 개발 지원과 기술지원 제공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연결성 강화방안 모색
4. 조세·반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태평양 지역의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기준, 협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세, 자금세탁 방지, 뇌물 방지 제도를 제정·집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촉진 · 전문 지식 공유 및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 지원

자료: "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2022. 5.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statement-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검색일: 2022. 5. 31).

■ 아세안 회원국들이 IPEF 참여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가운데, 일찍이 참여 의사를 밝힌 싱가포르를 포함해 아세안 주요 7개국이 IPEF 참여국 명단에 이름을 올림.

- 1) 일본 도쿄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공식 출범식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인도 모디 총리가 오프라인으로,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국 대표들은 화상으로 참석함.
- 2) "White House welcomes Fiji to its Indo-Pacific economic plan"(2022. 5. 2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ite-house-welcomes-fiji-its-indo-pacific-economic-plan-2022-05-27/>(검색일: 2022. 6. 6).

- 아세안 국가들은 IPEF를 통한 미국의 역내 관여 확대를 반기면서도,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을 배제한 IPEF의 배타적 접근 △IPEF 협력 형태와 기능의 모호성 △IPEF의 지속성(durability)에 대한 의문 등으로 IPEF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음.³⁾
- 이에 본고에서는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입장을 살펴보고,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 의미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⁴⁾

2. IPEF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의 입장과 참여 배경

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022년 5월 12~13일 개최된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IPEF 구상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5월 23일 IPEF 출범 화상회의에는 무함마드 룡피(Muhammad Rutfi) 통상부 장관이 대리 참석해 인도네시아의 IPEF 참여를 선언함.
- 다만 인도네시아 통상부 고위 관료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IPEF를 지지하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IPEF에 참여한 것이지 엄밀히 말해 인도네시아는 IPEF의 회원국이 아니라고 설명함.⁵⁾
 - 이어 해당 관료는 IPEF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도네시아가 4개 필라에 모두 참여할 것인지 혹은 선택적으로 일부 필라에만 참여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힘.⁶⁾
- 인도네시아의 IPEF 참여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자국의 핵심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IPEF의 구체화 과정에서 아세안의 이해를 반영시키고 역내 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 생산 허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 원자재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테슬라의 전략적인 이해가 부합하는 상황임.

3) Matthew P. Goodman and Aidan Arasasingham(2022. 4),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SIS Briefs, pp. 2-6,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20411_Goodman_IPEF_Regional_Perspectives.pdf?EaiXVytj9iXGoMnYVuXZWa13mHrFY_dh(검색일: 2022. 5. 28).

4) 본고에서는 IPEF 출범 전후로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6개국의 입장과 참여 배경을 분석하였음.

5) "Indonesia hedges against US 'comeback' into Indo-Pacific"(2022. 5. 26), <https://www.thejakartapost.com/opinion/2022/05/13/tech-tycoon-bromance.html>(검색일: 2022. 6. 2).

6) *Ibid.*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직후 미국 Tesla Motors 및 SpaceX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와의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투자 안전 및 머스크 회장의 11월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해 논의함.⁷⁾
- 인도네시아 정부는 IPEF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IPEF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등 IPEF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 AOIP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의 헤징 전략 중 하나로 2019년 6월 인도네시아 주도로 채택되었으며,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기반으로 경쟁과 갈등이 아닌 포용적 형태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아세안의 의지를 담고 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IPEF와 AOIP 간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를 밝힌 데 이어,⁸⁾ 무함마드 룫피 통상부 장관도 IPEF 출범식에서 “IPEF는 모든 국가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인 형태”로 “AOIP와 같은 기존 협력 프레임워크와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함.⁹⁾
- 인도네시아는 디지털경제,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면서도 아세안의 이해보다 IPEF를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¹⁰⁾ 향후 IPEF의 구체화 과정에서 아세안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나.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아즈민 알리(Mohamed Azmin Ali) 통상산업부 장관은 5월 23일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총리를 대참하여 말레이시아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IPEF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질의 투자 유치, 전기·전자 산업 공급망 강화,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관측됨.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2022년 5월 26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시아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의료·전기전자·디지털경제 등의 분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RCEP과 함께 역내 경제통합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¹¹⁾

7) 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2022. 5. 15), “Elon Musk to Visit Indonesia in November This Year”(검색일: 2022. 5. 29).

8) 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2022. 5. 14), “War in Ukraine Must be Stopped: President Jokowi”(검색일: 2022. 5. 29).

9) 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2022. 5. 14), “Trade Minister Highlights Four Issues on IPEF Launching,” <https://setkab.go.id/en/trade-minister-highlights-four-issues-on-ipef-launching/>(검색일: 2022. 6. 3).

10) *Ibid.*

11) Bernama(2022. 5. 26), “Malaysia confident IPEF will strengthen Indo-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ttps://www.bernama.com/en/news.php?id=2084881>(검색일: 2022. 5. 25).

- 모하마트 아즈민 알리 통상산업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IPEF는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최초의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환경·기후변화·노동 관행·거버넌스 등 비전통적 이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¹²⁾
- 통상산업부 장관은 IPEF가 FTA와 달리 회원국간 관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역내 국가들의 IPEF 참여를 유도하고 저개발국들의 노동·환경 관련 국제표준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기술원조, 역량 강화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¹³⁾
- 말레이시아 제조업협회(FMM)는 IPEF 출범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을 환영하며, 미국으로부터 고품질 제조업 투자를 유치해 고용 창출, 공급망 구축,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희망한다고 밝힘.¹⁴⁾

■ IPEF 출범으로 코로나19 이후 타격을 입었던 역내 공급망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 마련, 공급망 투명성 및 다양성 강화 등은 말레이시아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됨.

-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플랜테이션 등의 산업에서 노동자 착취 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 노동자 인권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만큼, IPEF 참여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여건 개선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일례로 미국은 채무 노예(debt bondage), 위험한 작업 환경, 강제노동(forced labor) 등 외국인 노동자 착취 정황을 근거로 2020년 7월에 세계 최대 의료용 라텍스 장갑 생산업체인 말레이시아 탑글러브(Top Glove) 사로부터의 장갑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¹⁵⁾

다. 필리핀

■ 필리핀의 라몬 로페즈(Ramon Lopez)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2년 4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을 계기로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5월 23일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참석해 필리핀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함.

- 필리핀은 2022년 6월 말 신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이 현 두테르테 대통령을 대신하여 IPEF 출범식에 참석해 환영 메시지를 전달함.

12) Reuters(2022. 5. 14), “Malaysia touts trade access as U.S. Indo-Pacific plan only a ‘good beginning,’”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malaysia-touts-trade-access-us-indo-pacific-plan-only-good-beginning-trade-chief-2022-05-13/>(검색일: 2022. 5. 25).

13) *Ibid*.

14) Bernama(2022. 5. 25), “FMM welcomes further strengthening of investment ties with US through IPEF,” <https://www.bernama.com/en/news.php?id=2084639>(검색일: 2022. 5. 25).

15) 이후 탑글러브 사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13개월 만인 2021년 9월에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됨. Nikkei Asian Review(2021. 9. 10), “Malaysia’s Top Glove free to export to US after ban lifted,” <https://asia.nikkei.com/Business/Companies/Malaysia-s-Top-Glove-free-to-export-to-US-after-ban-lifted>(검색일: 2022. 5. 25).

- IPEF 출범에 앞서 필리핀은 2022년 5월 12~13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아세안 정상회담에서 AOIP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IPEF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IPEF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¹⁶⁾
- 2022년 5월 9일에 대선이 개최됨에 따라 퇴임을 앞둔 두테르테 대통령을 대신해 테오도로 로신 (Teodoro Locsin Jr.) 외교부 장관이 미·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함.

■ 필리핀 정부는 IPEF의 방향성이 필리핀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발전 방향과 일치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통해 교역, 중소기업(MSME),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인프라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은 IPEF 출범식에서 회복력·지속가능성·포용성·경쟁력 강화 등 IPEF가 추구하는 가치가 필리핀 정부의 경제 및 개발 방향성과 일치하며, IPEF의 4대 필라 중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가 2021년 제9차 미·필리핀 양자 전략대화에서 채택한 ‘21세기 미·필리핀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비전(Joint Vision for a 21st Century United States-Philippines Partnership)’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함.¹⁷⁾
-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2년 4월 미국에서 개최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IPEF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필리핀 정부의 관심사도 전달함.¹⁸⁾
- 필리핀 측은 IPEF 중 교역, 중소기업(MSME),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력성, 지속가능한 환경,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하고, 알래스카산 해산물 수입 확대(수입 후 가공수출 계획), 대미 파인애플 수출 관련 검역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함.¹⁹⁾
-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2년 4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회복력, 포용성, 경쟁력, 기술, 혁신, 디지털경제,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정 성장 등 IPEF가 추구하는 목표가 필리핀 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구축 관련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²⁰⁾

■ 필리핀은 IPEF 출범을 계기로 공급망 구축,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원조와 투자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1946년 수교 이후 미국과 긴밀한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IPEF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기대가 큼.

16) 주미 필리핀대사관 보도자료(2022. 5. 13), “PH PUSHES FOR REG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SECURITY, CLIMATE AND POST-PANDEMIC ECONOMIC RECOVERY AT ASEAN-US SPECIAL SUMMIT,” <https://philippineembassy-dc.org/ph-pushes-for-regional-cooperation-on-maritime-security-climate-and-post-pandemic-economic-recovery-at-asean-us-special-summit/>(검색일: 2022. 5. 25).

17) San Juan, Andrea E.(2022. 5. 24), “PHL, Indo-Pacific nations keen on joining US-led IPEF,” <https://businessmirror.com.ph/2022/05/24/phl-indo-pacific-nations-keen-on-joining-us-led-ipef/>(검색일: 2022. 5. 25).

18) DTI(2022. 4. 19), “PH, US reaffirm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https://www.dti.gov.ph/news/ph-us-reaffirm-strategic-economic-partnership/>(검색일: 2022. 5. 25).

19) *Ibid*

20) DTI(2022. 4. 21), “PH, US Dept. of Commerce discuss strengthening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https://www.dti.gov.ph/archives/news-archives/discuss-strengthening-strategic-economic-partnership/>(검색일: 2022. 5. 25).

- 2021년 기준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5대 수입 대상국으로, 필리핀이 소폭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국이기도 함.²¹⁾
- IPEF 출범식에 앞서 개최된 미·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은 기후위기, 해양안보, 포스트 코로나 회복과 관련해 역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함.²²⁾
- 필리핀 외교장관은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청정 연료, 에너지 혁신, 고효율 에너지 기술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관심을 표명함.
- 마르코스 주니어 차기 대통령도 2022년 5월 23일 기자회견에서 IPEF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리핀의 경제 개방도를 높ی겠다고 언급한 만큼,²³⁾ 신정부도 IPEF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부패 척결, 노동 관행 개선 등을 요구할 경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라.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IPEF 논의 초창기부터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적극적으로 IPEF 가입을 지지해왔으며, 5월 23일 공식 출범식에 참여함.

-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디지털경제 △청정에너지 및 환경 기술 △선진 제조업 △헬스케어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성장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PGI: Partnership for Growth and Innovation)’ 협정을 체결하면서 IPEF 가입의 초석을 다짐.²⁴⁾
- PGI 협정 체결 직후인 11월에는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산업통상부 장관들과 IPEF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파트너 국가간의 지속적인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²⁵⁾
- 이어 지난 3월 리셴룽 총리는 미국 방문 연설에서 “IPEF는 발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아키텍처(architecture)에서 미국의 관여를 강화해준다”라며 IPEF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힘.²⁶⁾

21) DTI(2022. 4. 21), “PH, US Dept. of Commerce discuss strengthening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https://www.dti.gov.ph/archives/news-archives/discuss-strengthening-strategic-economic-partnership/>(검색일: 2022. 5. 25).

22) 주미 필리핀대사관 보도자료(2022. 5. 13), “PH PUSHES FOR REG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SECURITY, CLIMATE AND POST-PANDEMIC ECONOMIC RECOVERY AT ASEAN-US SPECIAL SUMMIT,” <https://philippineembassy-dc.org/ph-pushes-for-regional-cooperation-on-maritime-security-climate-and-post-pandemic-economic-recovery-at-asean-us-special-summit/>(검색일: 2022. 5. 25).

23) NHK World Japan(2022. 5. 24), “ASEAN member countries assess new IPEF economic framework,”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20524_43/(검색일: 2022. 5. 25).

24)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홈페이지(2021. 11. 17), “U.S.-Singapore Partnership for Growth and Innovation: A Joint Statement by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Raimondo and Singapore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Gan Kim Yong,” <https://www.mti.gov.sg/Newsroom/Press-Releases/2021/11/US-Singapore-Partnership-for-Growth-and-Innovation-A-Joint-Statement>(검색일: 2022. 5. 25).

25)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홈페이지(2021. 11. 17), “Joint Ministerial Statement by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and U.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https://www.mti.gov.sg/Newsroom/Press-Releases/2021/11/Joint-Ministerial-Statement-by-Australia-New-Zealand-Singapore-and-US-on-the-IndoPacific>(검색일: 2022. 5. 25).

■ 싱가포르의 일찍이 IPEF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으면서도, 미·중 간 균형을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지속하며 IPEF가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멤버십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임.

- 리셴룽 총리는 IPEF 공식 출범식의 환영 메시지에서 “IPEF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IPEF 회원국들은 다른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향후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²⁷⁾
- 리셴룽 총리는 IPEF 출범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와 관계를 맺고 균형을 유지하여 회복 탄력성을 갖추며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힘.²⁸⁾
- 한편 리셴룽 총리는 “IPEF가 FTA는 아니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관련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하며,²⁹⁾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IPEF가 포괄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힘.³⁰⁾

■ 싱가포르는 IPEF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무역과 녹색경제 부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신산업 요충지로 도약하고자 함.

- 리셴룽 총리는 IPEF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싱가포르는 특히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협력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함.³¹⁾
 - 싱가포르는 2014년 스마트시티로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기회 창출을 위해 도시 생활의 모든 부문을 디지털화하는 새로운 국가 비전인 ‘스마트국가 이니셔티브(Smart National Initiative)’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한국, 뉴질랜드, 칠레, 호주, 영국과 디지털경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 2020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인 ‘2030 녹색계획(Green Plan 2030)’을 발표하며 국가 신산업으로 녹색경제를 강조해왔음.

26) 싱가포르 총리실 홈페이지(2022. 3. 30), “PM Lee Hsien Loong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US President Joe Biden,” <https://www.pmo.gov.sg/Newsroom/PM-Lee-Hsien-Loong-Post-Meeting-Media-Remarks-with-United-States-President-Joe-Biden-March-2022>(검색일: 2022. 5. 25).

27) “Intervention by PM Lee Hsien Loong at the virtual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on 23 May 2022,” <https://www.pmo.gov.sg/Newsroom/Intervention-by-PM-Lee-Hsien-Loong-at-the-Virtual-Launch-of-the-Indo-Pacific-Economic-Framework>(검색일: 2022. 6. 5).

28) Nikkei Asia(2022. 5. 23), “Singapore to join Biden Indo-Pacific pact, back China’s CPTPP entry: Lee,”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Interview/Singapore-to-join-Biden-Indo-Pacific-pact-back-China-s-CPTPP-entry-Lee>(검색일: 2022. 5. 24).

29) *Ibid*

30) The Straits Times(2022. 5. 13), “Singapore welcomes US’ proposed Indo-Pacific economic plan, says PM Lee,”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singapore-welcomes-us-proposed-indo-pacific-economic-plan-says-pm-lee>(검색일: 2022. 5. 24).

31) *Ibid*

마. 태국

■ 태국은 2022년 5월 17일 내각 국무회의에서 IPEF 참여를 결의하고, 5월 23일 IPEF 출범 화상회의에서 참여를 공식 선언함.

- 태국은 5월 12~13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제2차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정·경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3대 부문에서의 상호간 협력 의사를 교환함.
- 5월 17일 내각 회의에서 태국의 IPEF 참여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5월 23일 일본에서 개최된 화상회의에 프라윗 찬오차(Prayut Chan-o-cha) 총리가 참석해 태국의 IPEF 참여 및 지지를 공식화함.
- 다만 주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5월 22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태국 의회가 IPEF에 대한 성명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IPEF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태국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힘.³²⁾

■ 프라윗 찬오차 총리는 IPEF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국의 IPEF 참여는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반중 노선에 합류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강조함.

- 태국은 미국의 비(非)NATO 동맹국(2003년)이면서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진 국가이지만,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옴.
- 태국정부는 지난 5월 미·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기자동차, 의료 물자·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국의 공급망에서 태국과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미국과 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핵심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³³⁾
- 프라윗 총리는 5월 23일 IPEF 출범 화상회의에서 태국은 무역·투자 협력, 태국의 성장 전략인 BCG(Bio-Circular-Green) 경제 모델과의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탄소배출 축소, 디지털 경제 육성 등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향을 강조했으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강조함.³⁴⁾

■ 태국은 IPEF 참여를 통해 자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관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의 성장전략인 BCG(Bio-Circular-Green) 경제 모델과 차세대 성장동력인 전기자동차·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 파트너인 일본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태국은 IPEF 합류를 통해 자국의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2) "Thais willing to join talks on US Indo-Pacific regional pact"(2022. 5. 22),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313682/thais-willing-to-join-talks-on-us-indo-pacific-regional-pact>(검색일: 2022. 6. 5).

33) Royal Thai Government(2022. 5. 16), "PM pleased with success of 2nd ASEAN-U.S. Special Summit"(검색일: 2022. 5. 25).

34) Royal Thai Government(2022. 5. 23), "Statement by General Prayut Chan-o-cha(ret.)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Thailand at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23 May 2022 via teleconference"(검색일: 2022. 5. 25).

- 그러나 태국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자국의 IPEF 참여는 친미 전선으로의 합류가 아닌, 경제적 차원의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바. 베트남

■ 베트남 팜 민 쯐(Pham Minh Chinh) 총리는 5월 23일 IPEF 출범식에 참석해 IPEF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참여를 선언했으나, 베트남 외교부는 IPEF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정식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함.

- 팜 민 쯐 총리는 5월 11일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IPEF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함.³⁵⁾
 - 다만 아직 4대 필라의 구체적인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 5월 23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IPEF 출범식에서 팜 민 쯐 총리는 화상으로 참석해 베트남의 IPEF 참여를 선언함.
 - 총리는 안보, 신뢰, 책임에 기초한 다자주의와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베트남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를 추구할 것임을 밝힘.³⁶⁾
- 다만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IPEF 논의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이 IPEF 회원국은 아니며 논의 결과에 따라 IPEF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함.³⁷⁾
 - 이어 외교부 대변인은 “IPEF는 국제법과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에 따라 개방성, 포용성 및 투명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 경제적 연계성(economic links)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함.³⁸⁾

■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베트남은 미·중 갈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라는 경제적 유인으로 IPEF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적대국을 만들지 않기 위한 3불 정책³⁹⁾을 추진 중으로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헤징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06년 WTO 가입, FTA 체결(총 15개), CPTTP 가입 등 국제경제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개방정책이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IPEF 참여 또한 경제적 동기가 큰 것으로 관측됨.

35) Reuters(2022. 5. 12), “Vietnam leader interested in Biden economic framework, but needs to study detail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vietnam-leader-interested-biden-economic-framework-needs-study-details-2022-05-11/>(검색일: 2022. 5. 26).

36) Viet Nam News(2022. 5. 23), “Việt Nam joins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204361/viet-nam-joins-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html>(검색일: 2022. 5. 26).

37) Newsnpr(2022. 5. 26), “Vietnam has just discussed, not yet an IPEF member,” <https://www.newsnpr.org/vietnam-has-just-discussed-not-yet-an-ipef-member/>(검색일: 2022. 5. 28).

38) *Ibid*.

39) ①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② 베트남 내에 외국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③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제3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정책임.

- IPEF 회의에서 팜 민 쩌 총리가 공급망 다양화, 기술 혁신, 디지털 혁신, 전자상거래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세금문제 및 반부패 등 경제 관련 이슈를 주로 언급한 것도 이를 방증함.⁴⁰⁾
- 특히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TPP 가입 철회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참여 확대를 희망해왔던 만큼, IPEF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임.
- 6월 2일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2021~2030년 외국인투자 협력전략'이 GVC 연계 강화, 지원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IPEF의 공급망 필라 참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3.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의미와 전망

- 당초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 전망은 밝지 않았으나 아세안 7개국⁴¹⁾이 참여한 데는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실리 추구하고 함께 아세안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임.
- IPEF에 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아세안 3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이 제외된 만큼, 아세안 국가들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IPEF의 배타적인 협력 방식에 우려를 표해왔음.⁴²⁾
- 중국이 IPEF를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⁴³⁾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미국의 IPEF 참여 제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경쟁 심화에 맞서 아세안 회원국간 단합과 단결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던 만큼,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배제된 협력 방식에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
- 미국은 IPEF 출범 전 아세안 정상들을 워싱턴에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IPEF가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완성될 것이라는 점과 IPEF를 통한 미·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으며,⁴⁴⁾ IPEF 논의 참여를 공식화한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밝힘.
- 회원국이 IPEF의 4개 필라에 모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부 필라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접근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 애로요인을 줄여 주었음.

40) Viet Nam News(2022. 5. 23). "Việt Nam joins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204361/viet-nam-joins-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html>(검색일: 2022. 5. 26).

41) Matthew P. Goodman and Aidan Arasasingham(2022. 4),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SIS Briefs, pp. 2-6,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20411_Goodman_IPEF_Regional_Perspectives.pdf?EaiXVytJ9iXGoMnYVuXZWa13mHrFY_dh(검색일: 2022. 5. 28), pp. 2-3.

42) "China says Washington's 'divisive' Indo-Pacific strategy doomed to fail"(2022. 5. 23),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78764/china-says-washingtons-divisive-indo-pacific-strategy-doomed>(검색일: 2022. 6. 5).

43) "ASEAN-U.S. Special Summit, 2022 Joint Vision Statement"(2022. 5. 14), <https://asean.org/joint-vision-statement-of-the-asean-u-s-special-summit-2022/>(검색일: 2022. 6. 5).

- 미국이 IPEF 참여를 희망했던 대만을 참여국에서 배제한 것도 중국을 의식해 IPEF 참여를 주저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음.⁴⁴⁾

■ IPEF 출범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 회복을 알리는 첫 단계임을 고려할 때, 아세안 주요국은 일단 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후 향후 IPEF의 논의 전개 상황에 따라 특정 필라에의 최종 참여를 결정하는 실리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 IPEF가 완성된 형태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되기보다는 초기 멤버로 참여해 아세안공동체 혹은 자국에 유리한 규칙(rule)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을 것임.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IPEF와 AOIP 간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며 IPEF가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으며, 베트남도 IPEF가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아세안 국가들의 대거 참여로 IPEF는 역내 주요 다자경제협력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비록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협력에서 아세안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세안 7개국의 참여는 IPEF가 인도태평양의 주요 다자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중립 노선을 띠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IPEF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만 참여하는 배타적인 협력체로서의 이미지를 굳혔을 가능성이 큼.⁴⁵⁾

■ 다만 IPEF 출범식 참여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해석이 달라, 아세안 국가들이 IPEF 특정 필라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함.

- IPEF 특정 필라에대한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정부는 5월 23일 IPEF 출범식 참여는 정식 참여가 아닌 'IPEF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축소 해석함.
- 싱가포르의 일찍이 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거니와, 디지털무역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탈탄소·기후변화 협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다른 아세안 국가와 달리 조세·반부패 협력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IPEF의 4개 필라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IPEF 참여가 자국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에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반부패, 노동 관행 개선 등 일부 민감한 분야는 지양하되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필라를 중심으로 선택적 참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인도네시아, 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 이해에 무게를 두고 IPEF 협상에는 참여하되 IPEF의 구체적 내용

44) "Why Was Taiwan Left Out of the US-Led IPEF?" (2022. 5. 25), <https://thediplomat.com/2022/05/why-was-taiwan-left-out-of-the-us-led-ipef/> (검색일: 2022. 6. 3).

45) 뉴질랜드는 1986년 ANZUS(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조약에서 탈퇴하며 미국의 동맹국 지위를 상실했으나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며, 인도도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Quad에 참여하고 있음.

이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특정 필라의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는 IPEF 구체화 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 발효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IPEF에 시장접근 관련 의제가 없는 만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 디지털무역 표준 수립, 반부패 개선 등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⁴⁶⁾
- 아세안 국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분야는 필라 3(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로,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선진국들의 인프라 투자와 탈탄소화에 대한 기술협력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 참여국은 IPEF에 대해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IPEF 출범은 한·아세안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아세안 참여국 모두 IPEF가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해 추진되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나가야 함.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IPEF 공식 출범식에서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⁴⁷⁾
-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IPEF를 통한 자국의 제조업 공급망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한·아세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한국 핵심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아세안 국가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고민하고 이에 따른 국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부족한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참여를 독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혁신적인 민관협력사업(PPP) 모델 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발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탈탄소 기술협력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를 유인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청정에너지 전환,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을 고려한 신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KIEP**

46) “Biden’s Economic Plan Leaves Asian Leaders Wanting More”(2022. 5. 27), <https://foreignpolicy.com/2022/05/27/indo-pacific-economic-framework-ipef-biden-asia-trade/>(검색일: 2022. 6. 6).

47) 「윤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첫·한국도 책임 다하겠다」(2022. 5. 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888>(검색일: 2022. 6. 8).